전법 일기

부처님 법 만난 소년원 학생들 세상의 빛이 되길 기원합니다

'안양계'라는 조계종 승가결사체가 있다.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이 전법교화활동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종단에서는 이들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

이에 안양 소년원인 정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비구니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가 안양계다. 필자는 3년 전부터 안양계의 일원으로 활동하다 현재는 대표를 맡고 있다.

처음 포교소를 시작하며 지역사회와 연관된 활동들을 찾고 있었다. 가까이 안양교도소가 있어 교정교화 전법활동에 관심이 있었는데 우연히 안양계 스님들과 연결되어 같이 활동하게 되었다. 당시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활동도 많지 않았고, 학생 수도 5~7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현재는 20~25명의 학생들이 꾸준히 불교활동에 나온다. 이는 매우 괄목할 만한 일이다. 아이들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불교가 그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갔고 필요한 부분을 충족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소년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 방영되었던 〈소년심판〉이란 드라마를 떠올린다. 거기에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하는 학교폭력문제는 이들을 기피 대상으로 낙인찍는다. 하지만 막상 학생들을 대해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눈에 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나 초점 잃은 눈빛, 약간의 방심에도 방출되는 분노와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이 스님들과 봉사자들 눈에는 방황하는 자녀가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줄 수 없지만 그래도 힘들 때 잠시라도 곁에 있어주고, 세상을 보는 법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 거기에 조금 욕심을 보태 아이들이 힘들거나 기쁠 때 '관세음보살'이나 '나무아미타불'을 읊조리길 바랄 뿐이다.

며칠 전 겨울수련회가 있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같이 있으며 간식도 비교적 자유로워 떡볶이와 치킨을 가지고 갔다. 첫 시작을 차명상으로 포문을 열었다. 처음 마시는 차에 짐짓 신기해하면서도 동화되는 아이들이 표정이 참 예뻤다. 간식을 먹을 때에는 선생님들을 챙기는 모습이 여느 중고등학생보다 의젓해 보였다. 1월이라 윷점으로 신년운세를 봐줬는데 아이들이 각각 윷을 던질 때 성불도 놀이처럼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합창했다. 얼마나 신나던지 벌겋게 상기된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끝날 때 "스님 언제 또 오세요?" "저희 기독교반에서 일부러 불교반으로 왔어요." "스님 나가서 연락드려도 돼요?"라는 말을 건네는 아이들로부터 내 존재가치가 느껴진다.

문득 '상생'이란 단어가 떠오른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사실 상생의 관계이다. 불편할 순 있어도 각자의 존재가치는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들이 시설을 나간 후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 후엔 세상의 빛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하니 말이다!



시현 스님
안양 행복선원 주지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⑫ 장사 경잠 선사의 오도송

향상일로 마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자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백 척 되는 장대 끝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百尺竿頭不動人)
비록 대단한 경지이긴 해도 아직 멀었네.
(雖然得入未爲眞)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百尺竿頭須進步)
온 누리 그대로 내 몸과 하나가 되네.
(十方世界是全身)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산기의 화두(공안)는 한자문화권에서 '천 길 낭떠러지에서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는 뜻을 가진 '현애살수(懸崖撒手)'와 함께 사람들의 입에 회자(膾炙)하는 꽤 격조 있는 고사성어이다.

중국이나 유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의미로 사용하고, 선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순간에서도 한 걸음 더 밀어붙이는 용기'를 뜻한다.

이 선시는 당나라 때 장사 경잠(長沙 景岑, ?~868) 선사의 오도송이다. 경잠 선사는 중국 호남성 장사에서 선풍을 드높였으며, 중국 선종사에서 최초로 천하를 통일하고 선의 황금시대를 연 마조(馬祖) 대사의 상족제자인 남전 보원(普願) 선사의 제자이다.

선가어록인 〈무문관〉 46칙에 다음과 같이 이 오도송의 전문이 소개되고 있다.

석상(石霜) 선사가 큰스님께 물었다. "백 척 되는 장대 끝에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큰스님이 말했다. "백 척의 장대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비록 도의 경지에 들어가긴 했으나 아직 멀었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온 세상이 그대로 내 몸과 하나가 되어 내 전신(全身)을 나타낼 수 있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百尺竿頭進一步)'는 가르침은 서슬이 시퍼런 화두이다. 당송시대 선가에서는 부처를 먼 곳에서 찾지 않고 자신이 모시고 가르치는 스승인 큰스님을 부처님과 같은 존경과 귀의처인 생불 조사로 모셨다. 그 스승께서 백척간두에서 손을 놓으라고 명령한다.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난감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뜻일까? 이것이 '시심마(是甚麽, 이뭐꼬)' 공안이다. 선사는 "생각을 놓아 버려라. 방하착(放下着)하라. 생각이 멈춰서 고정되고 집착하면 죽는다"고 설법한다.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수상소감에서 "세상은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그러면서도 이토록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다.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것이다. 즉 견성성불(見性成佛)이다. 성불하면 장대 끝에 올라앉은 것이다. 여기서 수행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부처의 임은 중생이다. 고통 받고 있는 중생 겉으로 다가가서 구제해야 한다.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은 부처 겉에서 보좌하고 있는 보처보살(補處菩薩)이다.

중생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선행 봉사자가 실제로 불보살의 화신이 되어 세상을 보살피고 있다. 이들이 있어 세상이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심우도〉의 수행 열 단계에서 마지막 열 번째 단계가 '입전수수(入廛垂手)'이다. 사람이 살고 있는 시장에 나가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보살행을 함으로써 불교 수행을 완성하는 것이다.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나라 일이 순조롭지 않다. 그래도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향상(向上) 일로(一路)의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책으로 불교 만나는 한해되길

최근 광화문 대형서점을 방문해 다양한 분야의 신간을 둘러보던 중, 잡지 코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잘 보이는 매대에 개신교와 가톨릭 관련 잡지가 한가득 쌓여있던 것. 다양한 연령층의 눈높이에 맞춘 해당 잡지들을 읽다 보니 문득 불교 잡지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졌다.

"실례합니다. 불교 잡지는 어느 쪽에 있나요?"

"불교 잡지요? 그런 게 있었나…."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 본 잡지 종교 코너에서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다. 개신교·가톨릭 잡지가 무려 80여 종에 달하는 반면, 불교 잡지는 고작 4종에 불과했다. 직원의 당황스러운 반응이 이해가 가는 차이였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런 현상은 잡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교보문고 종교 베스트셀러 20위에는 개신교·가톨릭 도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불교 도서는 30위 이후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한 개신교·가톨릭 도서들은 2024년 12월에 발간된 최신작들이었으나, 불교 베스트셀러는 2023년 5월에 발간된 도서가 가장 최신이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독서인구 비율은 48.5%로 2021년 45.6%보다 2.9%p 증가했다. 게다가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온·오프라인 서점 매출이 40% 이상 증가하고, SNS에서 독서 인증이 활발히 이뤄졌다. 무엇보다 2030세대에서 떠오른 '텍스트 힙(책에 열광하는 현상)' 문화는 도서 시장이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중들이 독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내 주변에 불교 도서를 1권씩 선물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불자들이 친구, 가족, 혹은 이웃에게 불경 해설서, 문구 모음집 등을 전하는 문화가 퍼진다면 자연스레 대중성 높은 불교 도서가 늘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2025년에는 '책'으로 만나는 도반이 늘길 기대해본다.



김가령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